

# 다케시마로 갈 수 없게 된 이유

## 애당초...

2차대전이 끝나고 평화조약(※1)이 체결되었습니다. 학국정부는 다케시마가 자기 영토라 미국한테 조약문 초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거부(※2) 하였습니다. 그 때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이 평화조약에서도 확인됐습니다.

### ※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

1951년 9월 8일 조인.

1952년 4월 28일 발효.

제2조(a)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, 제주도, 거문도,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,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.

### ※2 미국 정부가 전달한 회답(라스크 서한)

‘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서 삼은 적이 없고, 1905년경부터 시마네현 오키지청 관할 밑에 있었으며, 지금까지 조선이 영유에 관한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하지 못함.’

### 라스크 서한이란?

한국이 미국으로 보낸 평화조약 초안 수정에 관한 요망서에 대해서, 1951년 8월 1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답한 문서. 그 때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국무장관 대리로 싸인을 했으므로 ‘라스크 서한’이라고 한다.

## 그러면 왜?

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에 한국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아무 통보없이 ‘이승만 라인’ (한국에서는 ‘평화선’이라고 한다) 을 선언하고 (해양주권 선언) 다케시마를 한국 쪽에 옥지로 포함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다케시마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

‘이승만 라인’ 안쪽에 다케시마를 넣었습니다.



한국은 이승만 라인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일본쪽이 다케시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무력 점령하고 있습니다.